

2019년도 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사 30:23)

NEW  
**순복음Life**  
제44호

발행일 : 2019.12. 8.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 밀랍청년회 김연훈 회장



**‘무슨 일이 있어야만 간증이 아니고  
모든 일이 모든 순간이 간증이 될 수 있다!’**

## <간증>

김연훈 청년

한 해의 마지막 12월, 간증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기회를 주신 문서 위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올 9월 2학기 시작을 앞두고 수강 신청을 비하며 어떤 과목을 신청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한 정 학점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2학기

는 적어도 17학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전공과목만으로는 17학점을 채우지 못해 교양 과목을 알아보는데 그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전공과목과 실습 시간과 겹쳐 교양 과목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과목을 정했다 하더라도 선착순으로 신청이 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뿐이었습니다.

‘기도’라는 단 한 가지 방법뿐이었지만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전도사님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 수강 신청 날을 맞이했습니다. 전공과목을 신청하고 교양 2개를 신청하는데 한 과목은 성공했는데 또한 과목은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3, 4학년을 위한 새로운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심지어 시험도 없는..... 지체없이 신청하였고 저는 17학점을 채웠습니다.

‘간증’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부담감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간증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어떤 일이 있었더라? 어떤 경험을 말해야 모두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준  
니  
일  
에

어쩌면 그래서 간증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던 중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야만 간증이 아니고 모든 일이 모든 순간이 간증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았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날들이 간증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 것, 육신의 연약함 없이 1년을 보내게 하신 것,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부족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우리 가족과 당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건강을 되찾고) 마무리하게 하신 것, 1년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인도하신 것 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이 연일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당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 서로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딸랑 구이 뽀뽀?



경숙 IS 원들



경숙 판박이

## <성도 알아보기>

김경숙 성도

### 1. 고향은 어디세요? 성도님의 어린 시절도 궁금해요.

제 고향은요. 경기도 용인 수지에요. 김병연 청년이 다니는 단국대학교가 멀지 않아요. 그 옛날 그곳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어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런 동네요. 지금은 그런 모습 찾아볼 수 없지요. 저는 2남 2녀 중 맏딸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엄마 아버지께서 일 나가시면 동생들 데리고 놀다가 저녁이 되면 연탄불에 밥해 놓고 부모님 기다리곤 했어요.

### 2. 이종희 집사님의 전도로 우리교회 오셨지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병관이 엄마였는데..... 병관이 엄마와 저는 같은 나이의 아들을 두고 있었지요. 병관이와 정훈이요. 그래서 알게 됐구요. 그땐 우리가 이런 둘도 없는 사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병관이 엄마를 제게 보내주신거요. 병관이 엄마는 저를 축복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 3. 자신의 성격을 진단 해 주세요.

조용하고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정적인 성격이기도 했구요. 학창 시절 창문 밖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기던 소녀였어요.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이 되고 싶은데 태생이 그런지 어렵네요.

### 4. 부모는 자식에 대한 소망으로 살지요. 내가 바라는 딸 아들의 모습은?

아들 정훈이에게 바라는 것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성실하게 다니고요. 건강하고 술은 좀 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딸 민지에게 바라는 건 무엇보다 건강이에요. 민지가 아플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늘 걱정이거든요. 하나님 믿고 늘 민지의 건강을 놓고 기도했어요. 지금처럼 엄마 옆에서 밥 먹으면서 병원 근무하며 건강하게 있다가 때 되면 아빠처럼 성실한 사람 만나서 시집갔으면 좋겠어요.

5. **바야흐로 눈 내리는 겨울이 왔어요. 건강을 조심해야 할 때지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다만 지금 약 먹는게 있는데 꼬박꼬박 먹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딸 민지하고 종종 걸기도 하고 때때로 날이 좋으면 교회에 걸어서 가기도 해요.

6.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 좋은 세상 뭐하시면서 사시겠어요?**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지요 ^^ 80 중반까지 살고 싶어요. 그때까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소소한 거지만 갖고 싶은 것 사는 작은 즐거움도 느끼면서 살고 싶네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게 지금은 조금 눈치가 보여요. TV에서 기독교에 대한 무슨 큰 사건이 나거나 주위에 믿는 사람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다보니 제가 교회 다니는게 눈치가 보이네요. 남은 생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7. **요즘 성형수술은 인생살이 필수 코스래요. 혹시 성도님은 성형외과에 가면 어디를 만드시겠어요?**

이 나이에 성형수술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하게 된다면요. 입이요~ 입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더해도 된다면 턱이요~ 가름해졌으면 좋겠어요. 돌려깎기 ~ ^^ 또 더해도 되면 키도 늘리고 싶어요. 160만 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널모레 평신도 헌신예배 때 신발 신지 않고 양말신고 앞에 선대요. 키 높이 없이 앞에 서야 하잖아요 다들 저보다 키가 크시잖아요. 박순옥 성도님 조은혜 성도님 유혜진 성도님 김성광 성도님~ ~오마이 갓 !!!

8. **교회서 행사 때 율동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고운 목소리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고 싶은 주님의 일이 있으시지요?**

저는 율동도 잘 못하고 찬양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는 제게 안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장서서 추진력 있게 일을 잘 못해요. 그냥 원가 시켜주시면 순종하며 성실하게 함께 할게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 기대와 설렘으로 가을 심방을 드리셨지요? 심방을 드린 후 성도님의 삶의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으세요?

저에게 이렇게 감사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말씀 주신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거예요. 기도 모임도 열심히 나갈거구요. 예배도 열심히 나갈거구요. 수산나 기관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할 거예요. 교회 봉사 하는데 있으면 그곳에도 부지런히 다닐거예요. 지금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10. 남편 분께서는 굉장히 가정적인 분으로 소문 나셨더라구요. 어떤 분이세요?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가족밖에 모르고~ 또 생활력 강하고 제가 최고인 듯 대우해 줘요. 저는 그만큼 맞춰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사는 동안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집 센 것은 많이 어려워요. 어떤 때는 벽창호 같아요. 그 사람도 저에 대해 저와 똑같이 생각하겠죠? 민지가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고맙고 만족해요.

11. 살면서 후회되는 것 떠오르는 대로 말씀 해 주세요.

교회에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교사가 되서 활동하고 그런 것 보면 조금 많이 후회가 되요. 제가 좀 더 일찍 교회에 와서 열심히 쪽 ~~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 애들도 저 자리에 서 있을텐데..... 우리 민지는 피아노를 배워서 반주를 하고 정훈이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하는 자리에 함께 있을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많이 아쉬워요.

12. 작년에 성도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무엇이 달라지셨나요?

침례를 받은 후 어느 날 생각 해 보니 제게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뒤에는 하나님과 기도 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신다 생각하니까 두려울게 없더라구요.

13. 성도님께 교회란?

좋은 곳이에요. 지나가다 교회를 보면 마음이 좋아져요.

<기도>

조은혜 성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연약하여서 선한 것을 알면서도  
악한 것을 택하며 인간적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며 구원의 확정을 이루어 가는  
참다운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겨울 교회의 지체들의 영육이

더욱 더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마지막 달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산을 잘 하게 하셔서

새로운 해를 축복으로 힘 있게 시작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정소진 권찰

처음 정소진 권찰님을 보았을 때가 아마도 유치등부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슴같이 큰 눈망울에 볼살 땡긋땡긋한 아주 귀엽고 예쁜 아이였어요. 작은 일에도 서러워 그 큰 두 눈에서 구슬같은 눈물방울을 푹푹 떨어뜨리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학생, 청년 그리고 이제 권찰의 직분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 우리 교회와 함께 성장하며 주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작년을 마지막으로 청년의 때를 마무리 짓고 올해 처음 장년에 배정되면서 꽤나 부담스러웠을 장년 구역에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잘 해 낼 수 있을까?

걱정이 반이었는데 걱정은 믿음 없는 나의 몫 일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구역에 합력하여 구역식구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마스크트 같은 이쁨만 잔뜩 만들어 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른들의 영역을 거침없이 누비며 앞치마도 두르고, 청소기도 돌리며 어른들에게 조금에 어색함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에스더 기관에서는 고만고만한 이집 아이, 저집 아이들을 서로 돌보며 헌신예배 준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들 눈에 익은 사람들이라 낯가림은 적었는데지만 장년은 처음이라 어색할 만도 한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잘 지켜 나가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그와 동행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생글생글 웃는 그 선한 웃음에 주님도 함께 미소 지어 주시겠지요?

정소진 권찰님! 내년에도 힘내서 교회 곳곳에 권찰님의 흔적 많이 남기시길 바래요~~~

## < 감사 릴레이 >

최은주 집사

2019년도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광이의 결혼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보아 왔지만 내 식구가 될지는 몰랐던 귀한 딸 혜진이가 아들 성광이와 신앙으로 하나되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에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염려했었지만 기도 들어 응답주시는 하나님께서 폭풍같은 비바람 속에서도 잠잠함의 은혜를 주시며 무탈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려야 할지 고민하며 결정했지만 마음에 정한 금액이 채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편이셨던 주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하여 추수감사절 바로 하루 전날에 기도하며 원하여 결정했던 금액을 채워 주셔서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돌아보면 물질적으로 최악이라 여겨질 만큼 힘든 한 해였지만 여기까지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꾸러 다니지 않게 필요한 부분들을 풍성히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음주자 : 박기숙 집사

## <주일학교 소식>

두꺼운 외투를 하나둘 꺼내는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추위와 싸워 이기기 위해 따뜻한 옷을 꺼내 입듯이 우리의 영혼도 병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11/17에 있었던 추수감사절 찬양대회를 기억하시나요? 어른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저희 친구들도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찬양 연습에 몰두했었는데요.

유년부 친구들은 유혜진 선생님 지도 아래 [감사해요 + 전부]라는 곡을 준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와 축복에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의 첫 번째 찬양과 나의 삶의 전부되신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기도로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내용의 두 번째 찬양을 불렀습니다. 유년부는 분위기에 맞게 귀여운 동작들도 함께 했었는데요. 초등부 친구들은 장미라, 유진경 선생님 지도아래 [태초에 + 온 마음을 하나님께]라는 곡을 준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것들에 대한 내용의 찬양을 하면서 어떤 것이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빛은 사탄마귀(어둠)를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영상은 유튜브에 '당진순복음교회 미디어팀'에 올라와 있으니 많은 시청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주에는 민이삭 선생님이 준비한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는데요. BINGO! 바로 빙고 게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한된 단어를 앞에 띄어주고 미리 준비된 용지에 자유롭게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은 순서대로 단어를 부르고 5줄 이상 빙고를 완성한 친구들 7명을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단순한 게임이었지만 어린이들이 너무 즐겁게 참여했었는데요.

선생님도 많이 준비를 했지만 아쉽게도 짧은 시간 때문에 구약, 신약이라는 제시어로 2판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스바냐, 스가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등 처럼 길거나 비슷한 성경 이름은 아이들이 헷갈려하거나 생소해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성경과 친숙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함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유초등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공부 많이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올바르게 분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도 항상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경 퍼즐

1									6	
2	3		5				7			
	4					8				
							9			
					10					
11	12		13					17		
							18			
			14		15					
					16			19		

## ※ 가로 열쇠

2. 아비멜렉의 군대의 총대장의 이름 (창 21:22)
4.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 8:39)
5. 이제 일 오멜은 십분의 일 ○○니라. (출 16:36)
7. 언약궤를 만드는데 사용된 나무. (삼상 27:2)
8. 골리앗의 고향 (삼상 17:4).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곳으로 도망한 적도 있음. (삼상 27:2)
9.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재판관(사사) (삿 6장)
10.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년간 벌거벗고 지냈던 대언자

11.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한 사람들 중의 한명. 언약 궤를 제작하였다.  
(출 37:1)
14. 신약 시대에 여러 명 등장하는 인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이름을 가진 자가 2명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도 있었다.
16.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 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수 6:18)
17. 아론의 지팡이에서 열린 열매 (민 17:8)
18.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19. 다윗의 셋째 아들.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 의해 죽게 됨.

## ※세로 열쇠

1.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야,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 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창 22:8)
3. 소아시아에 위치하지만, 요한 계시록에 나오지 않는 교회.
5. 야곱의 형
6.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 나온 대언자.
7. 남 유다의 마지막 왕
12.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 있더라 (막 15:40)
13. ○○○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약 5:17)
15.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마 6:20)
17. 성막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으로 단 지파 소속. 정교한 기술자로 수를 잘 놓았다고 한다. (출 38:23)

# 성경숨은그림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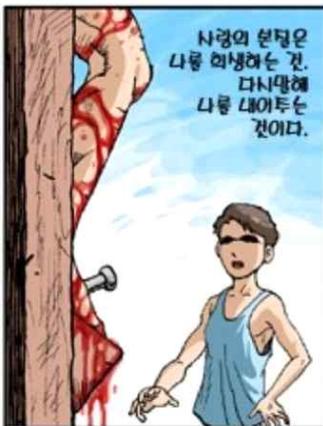
## 성경숨은그림찾기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왕상 3:26-27)

(숨은그림 : 소시지, 모자, 청둥오리, 신문, 압정)

# \* 믿음의 본질

- essay.111 -



**\* 따라서 믿음의 본질은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내어두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깜찍한 언니 ver.**



**꽃보다 아름다운 언니들**

**예쁜 언니 ver.**



**노인회관  
저리가라**



**순복음교회로  
모여라**



**DJFGCC**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모든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단 #긴장하라**





# 2020년 DJFGCC 김치

김치 하나로 한끼 해결, 중식팀 걱정 마쇼잉  
우리가 책임진다. 무한신뢰+1, 미니걱정없음.



**이번김장 성공적**



**설정아니구 리얼임.**



**왕엄마 채고**



**튼튼한 아버지**



**엄마들의 손맛**

## \* 가치 있는 일

한 경찰관이 술집 앞 주차장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서 잡으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경찰관은 차 안에서 주차장을 지켜보다가 한 손님이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나오더니 도로 턱에 걸려 넘어질 것처럼 걸다가, 자기 차도 못 찾아 남의 차를 10여 대나 열어보다가 간신히 자기 차를 찾아 앞 좌석에 쓰러지듯 몸을 누였습니다. 시동을 켜기만 하면 경찰의 단속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술기운이 심한지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술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만취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흘려보냈습니다. 주차장이 거의 텅 빈 후에야 만취한 사람이 똑바로 앉아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현장을 덮쳐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낸 뒤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였습니다.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취한 행동을 한 사람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전 오늘 술자리 게임에서 <오늘의 미끼>로 당첨되었거든요.”

오늘의 미끼로 당첨된 사람은 술 한 잔을 걸친 사람들이 무사히 주차장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단속 경찰의 관심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잠도 안자며 몰두하는 일이 혹시 도박과 같은 일은 아닌가요? 가족들에게 소리치고 호통하는 일이 별 것 아닌 자존심 때문은 아닌가요?

순간의 감정은 지나가면 아무런 흔적도 가치도 없지만, 그 한순간의 감정 파편에 상처 입은 가족들의 마음은 평생을 괴로워하는 아픔이 됩니다. 절대 양보 못 할 일,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일은 과연 그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인가요? 아니라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돈과 숫자는 쉽게 계산이 되기에 계산되지 않는 인생보다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계산되는 물질이 아니라 계산되지 않는 인생과 생명과 인격과 영혼과 신앙과 삶입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후 4:18)

<퍼즐정답>



##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가난한 재봉사의 아들로 태어나 12살 때부터 도기 공방에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도자기에 그림을 붙여넣는 기계가 발명되면서 실직을 해야 했던 사람....화가로 각광을 받게 되었지만 심각한 신경통 때문에 붓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던 사

람.....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고

명작을 남겼던 사람, 바로 세계 최고의 색채화가 ‘르누아르’입니다.

그는 1841년 재봉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12살때부터 도기 공방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가 공방에서 하는 일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한창 성장하던 그 시기에 도자기에 그림을 붙여넣는 기계가 발명되고 결국 직업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잃은 후 자신이 잘하는 화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언제든지 일광욕을 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빛과 색을 뽐내는 세계 최고의 색채 화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 화가의 이름은 ‘르누아르’입니다. 나이를 먹은 르누아르는 심각한 신경통 때문에 붓을 들 수 없을 정도였지만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붓을 팔목에 붙들어 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어떤 사람이 르누아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손으로 어떻게 명작을 그릴 수 있습니까?”

르누아르는 대답했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눈과 마음으로 그려야 합니다. 교만한 붓으로 그린 그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마냥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로 방해받을 수도 있고 저런 일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해와 좌절이 그 일의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분명 당신에게는 수많은 재능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르누아르-



## 미니멀 라이프 & 맥시멈 라이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은 본인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찾아 살아가고 있다. 이 중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미니멀 라이프 & 맥시멈 라이프다.



미니멀 라이프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사는 생활) 맥시멈

라이프는 미니멀 과는 반대 되는 성향으로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이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뜨는 이유는 비움을 통하여 생기는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옷을 비움으로 계절 옷 정리가 편리해지고 집안의 짐을 줄임으로 청소시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생기는 시간은 오롯이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매력 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가다 보니 필요한 물건이 없는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 하고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맥시멈 라이프는 많은 물건들이 있어 생활은 편리 하지만 그 물건들을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동반된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미니멀 라이프 인가? 아니면 맥시멈 라이프 인가? 무엇을 선택 해 살아가더라도 본인 만족과 행복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하지만 반듯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속한 나는 미니멀 해 지고 주님께 속한 나는 맥시멈 해 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한다.

## 나오미(Naomi)

뜻 : 나의 즐거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의 아내, 룯의 시어머니 ([룯 1:2](#)).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행복]이며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엘리멜렉의 아내이자 룯의 시모이다. 그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따라 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그모스 신(신)의 고장인 모압땅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샤다이(전능하신)하나님께서선 신앙의 고향을 떠나 불신앙의 땅에 묻혀버린 나오미 일가에 채찍을 가하심으로 다시 귀하게 하신다. 즉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을 잃은 나오미는 자부 룯과 함께 고향땅으로 고뇌의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오미와 룯이 베들레헴 성문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하며 반긴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희락)라 칭하지 말고 마라(괴로움)라 칭하라]( 룯기 1:19-20)고 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삶의 방향을 세속으로 돌이킬 때 당해야 하는 엘 샤다이의 징계에 의한 고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룯기의 주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불행의 나오미가 엘샤다이의 능력에 의하여 다시 희락의 나오미로 탈바꿈하는데 있다. 유형론적 성서해석법에 따르면 나오미는 성령, 룯은 교회(성도),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나오미는 룯과 보아스 사이에 행복한 만남이 실현되도록 중보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다. 시모 나오미는 자부 룯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룯2:1-2)하면서 룯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신뢰케 하며 만나게 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신뢰토록 하고 그를 만나게 하며 의지하도록 하는 역사와 다름없다. 이와 같은 그녀의 중보역할을 통하여 룯과 보아스가 결합하고 그들 사이에서 다윗의 조부 오벧이 태어났을 때 나오미는 흔히 히브리 문학에서 볼 수 있는 해피 엔딩을 누리게 되었다. 나오미의 중보와 룯의 복종이 연합하여 새 행복을 창조했다고 단정할 수 있다.

# 시사용어 Briefing

## 다크 넛지(Dark Nudge)

다크 넛지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의미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된 단어입니다[출처] 최근 이슈 및 시사 금융용어입니다. 넛지는 단어 그대로 마케팅 영역에서도 사용되는데 팔꿈치로 옆구리를 톡톡 고개를 찔러보는 행동을 빗대어 고객의 구입을 은연 중에 유도하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단어인 Dark 를 결합하여 고객이 비합리적인(?) 구매를 하게끔 유도하는 상술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선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내가 뭐 제대로 산건가?' 하는 순간적인 궁금즉이 생기며 뭔가 이상하지만 또, 가만 생각해 보니 상술에 속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일일이 다시 따지기도 귀찮아 환 불하지 않고 구입 해 버리는 식의 마케팅입니다.

## 카푸치노 효과 (Cappuccino effect)

용어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거품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거품이 많은 카푸치노 커피처럼 말 그대로 거품이 많이 낀 경제 버블 경제를 뜻하는 말인데요. 카푸치노 효과는 주로 부동산시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른 경기들은 부양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의 경기만 과열되어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용 경제와 실물경제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효과입니다. 카푸치노 효과가 낀 시장은 투기꾼들이 많이 몰려 과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잠재되어 있는 내재 가치에 비해 과 평가된 버블 현상이 생기고 카푸치노가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꺼지는 것처럼 이러한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들이 확 몰렸다가 확 꺼지기 때문에 거품이 꺼질 때 과도하게 레버리지(부채로 투자)를 일으킨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떠들석 했던 비트코인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다가 급락하고 있는 요즘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